시로 읽는 성보순례
내 마음의 화엄
국보 제12호 화엄사각황전앞석등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제 몸부터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라.
스스로 제 몸을 바로 잡아서
침노하지 않으면 참 지혜라 한다. 〈법집요송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2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76호 2012년 2월 22일 수요일

2500년 만의 귀향

붓다 진신사리 룸비니에 봉안

108산사 순례기도회, 기념비 · 탄생불 제막식 대법회

서울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과 108산사 순례기도회 회원들은 2월 13~17일 네팔 룸비니를 방문해 '네팔 룸비니 동산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및 탄생불 제막식 대법회'를 봉행했다. 스님과 회원들은 2월 15일 룸비니 동산 내 '한국 네팔 불교도 우정의 평화공원'에 사리이운 평화기원 대법회 기념비를 조성했다. 대중들은 기념비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을 기원했다.

행사에는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 스님, 前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 前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동광 스님, 前 도선사 주지 광복 스님, 세심사 주지 승인 스님, 안동 봉황사 주지 보인 스님,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이현수 직할교구 신도회장, 108산사 순례기도회 홍보대사인 가수 장미화, 코미디언 이정표, 네팔 고팔 기라티 문화공보부장관을 비롯한 네팔 정부 관계자 및 108산사 순례기도회 회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평화 · 인류행복 기원

108순례 회원 7천명 이름 새겨

선묵혜자 스님은 2008년 인도 쿠시나가르 마하파리 니르바나 스투파에서 1910년 출토된 부처님 진신사리 8과를 인도 대열반사 주지 가네쉬와르 스님으로부터 봉양 받았다. 그 중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이번 행사를 통해 봉안했다.

선묵혜자 스님은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한국에서 탄생불을 조성해 네팔까지 이운했다. 1.5m 크기의 탄생불은 4.5m 높이의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기념비' 위에 봉안됐다. 기념비는 세계평화와 불국정토를 기원하는 3333개의 연등으로 장엄됐다.

기념비를 중심으로는 사리이운 과정과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7000명 회원 명단이 새겨진 비석이 조성돼 있다.

선묵혜자 스님과 108산사 순례기도회 회원들은 행사에 앞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평화공원에서 약 4km 떨어진 마야대비 사원을 참배했다. 이후 육법공양, 축하인사말, 축하공연에 이어 네팔 고팔 기라티 문화공보부 장관과 함께 부처님 사리 복장물 봉안하는 탄생불 제막식을 진행했다.

2012년은 룸비니 방문의 해로 네팔 정부는 유네스코와 조계종이 추진 예정인 룸비니 성역화 사업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이미 네팔 정부는 2008년 선묵혜자 스님과 108산사 순례기도회 300여 회원들을 초청해 룸비니 동산에서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한 바 있다.

고팔 기라티 문화공보부장관 대독을 통해 네팔 바버람 버터라이 수상은 "선묵혜자 스님이 건립한 기념비는 룸비니를 더욱 빛내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네팔과 한국 간의 우정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며 "기념비가 비록 네팔에 위치해 있지만 전 세계 인류 모두의 소유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묵혜자 스님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우리 모두 부처님의 제자라는 마음으로 불교문화를 교류해 나가고 두 나라의 친교가 두터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동산의 성역화를 위해 노력하는 네팔 정부 관계자와 선묵혜자 스님에게 감사하다. 큰 법력을 받아 정진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불제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네팔 정부와 유네스코에서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불법홍포 공덕을 인정해 부처님 탄생지에 기념탑을 세우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기원하는 일은 대단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묵혜자 스님은 13일 네팔 정부로부터 평화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관련기사 3면

룸비니=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세계평화 기원하는 3333개의 소망 선묵혜자 스님이 한국에서 제작해 이운한 1.5m 크기의 탄생불이 4.5m 높이의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기념비' 위에 봉안됐다. 그 주변을 3333개의 연등이 세계평화와 불국정토를 기원하며 환하게 빛나고 있다. 선묵혜자 스님은 2008년 인도 쿠시나가르 마하파리 니르바나 스투파에서 1910년 출토된 부처님 진신사리 8과를 인도 대열반사 주지 가네쉬와르 스님으로부터 봉양 받았다. 그 중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이번 행사를 통해 봉안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종교평화선언 보완 필요"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제2차 자문위원회 회의서

결사추진본부의 자문위원회가 종교평화선언에 공의 수렴이 좀 더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정 추대법회서의 선포는 연기됐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자문위원회는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2차 자문원회 회의를 2월 15~16일 이틀간 개최했다. 자문위원회에는 고우 스님, 무비 스님, 종진 스님, 용타 스님 등 선 · 교 · 율 · 종무 · 수행 분야의 스님들과 결사추진본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스님들은 "종교평화선언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더 공의를 모으고 교리와 부합되도록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3월 28일 종정 추대 법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시기도 새롭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거론됐다.

자문위원 스님들은 또 더 이상 선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잡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선 · 교 · 율, 종무 부문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소통방안을 다음 자문위원회 때 토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자문위원회 스님들의 의견을 받아 집행부 및 결사본부와 상의해 내용 수정과 발표 시기 문제에 대한 계획과 방안을 마련해 종정예하, 원로의장께 다시 보고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종교평화 선언을 놓고 마성 스님과 화쟁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마성 스님은 16일 〈불교닷컴〉에 '나는 왜 아쇼카 선언을 반대하는가'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스님은 종교평화선언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극소수이며 어설픈 종교다원주의와 정치적 목적으로 사부대중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쟁위원회도 17일 반박문을 발표하고 마성 스님이 사실을 왜곡하고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한일불교계, 동일본 지진 1주기 합동 추모

3월 9일 일본 광명사서

한일 불자들이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한일협의회)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는 3월 9일 오후 2시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鎌倉)의 정토종 광명사(光明寺)에서 '동일본대지진 1주기 추모위령법회'를 봉행한다.

한일협의회는 2월 13일 협회 사무실에서 2012년 제1차 이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사에서는 한일협의회 소속 양국 스님들이 추모사 · 축원문 등을 희생자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특히 천태종 범패스님들의 집전으로 한국불교 전통의식에 따라 추모의식이 진행된다.

한일협의회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인 5월에도 위령제 봉행과 함께 성금 1000만엔을 일한불교교류협의회에 전달했다.

한편, 한일협의회는 추모위령법회에 앞선 8일 일본 야마나시현 코후(甲府)에서 제7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일본 전통음식'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한국 여성불자 대표단 20여 명이 참석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불교생명윤리협회 창립한다

초대 회장에 진옥 스님

불교의 중요 가르침 중 하나인 생명존중 확산을 위해 불교생명윤리협회(회장 진옥)가 창립된다.

불교생명윤리협회는 3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오후 2시부터 창립식 및 '탈핵과 생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회장직을 맡고 있는 진옥 스님은 여수 석천사 주지이며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 이사장, 전남환경연합공동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세미나에서는 박경준 교수가 '불교철학과 생명의 존엄성'을, 진옥 스님이 '탈핵과 생명', 박란희 환경재단 기획위원이 '탈핵 독일의 에너지 경제 비전'을 주제로 발제한다.

진옥 스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 발전이 삼라만상의 생명뿐 아니라 현재의 편리를 위해서 자본과 권력의 손으로 미래의 삶을 파괴하는 일임을 드러냈다"며 "생명존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불교의 가르침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에 불교계가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 창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876호 CONTENTS

종단 2
범어사 담선법회
실천승가회 정기총회

종합 3
인터뷰| 108산사기도회 혜자스님
법정 스님 입적 2주기 추모 법회

시방세계 5
미얀마 난민 돕기 현장

비구니 지도자를 만나다 15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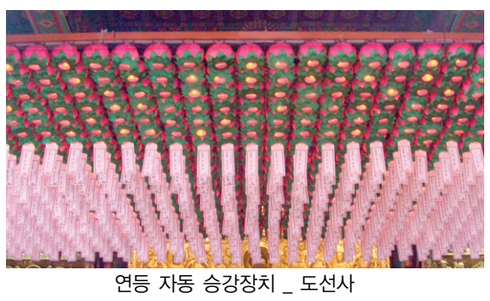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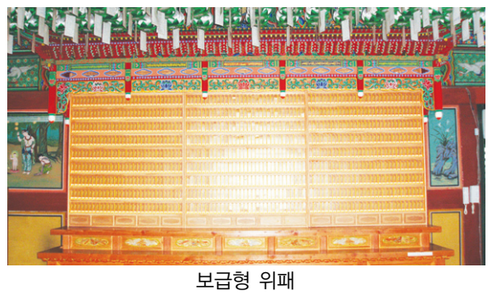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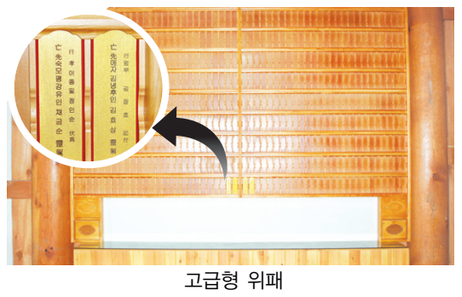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小

大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인등용 LED전구)